갤러리 색즉시공



해당화

절집
마당에
해당화가
가득 합니다.

어간 마루에서
내다보니
지붕보다
키가 더
큽니다.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이렇게
이렇게
푸르렀으면
합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포교는 어머니 무릎·가정에서부터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20여 년 동안 매월 가정법회 열어

'여여회' 만들고 경전 공부 시작

끝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인생

가정법회 서로 불법 물들이는 일

은행통장보다 '공덕통장' 만들어야

가정법회 20년의 시작

불교를 접하고 신행생활을 하기 전 나는 시서화(詩書畵)와 차(茶)를 공부하고 남편을 섬기며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치중하고 살아왔다. 집안은 언제나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쓸고 닦았으며,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김치를 담그고, 장을 직접 담는 살림꾼이라고 자부했다. 남편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아내였으며, 밖에 나갔다가도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돌아와 아이들을 맞이하는 등 엄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건강하고 품성 좋은 아이들을 섬기는 현모양처의 전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한 스님께서 우리 집에 들르셨다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시곤, "보살님의 집이 불자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신 말씀이 20여 년 동안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운영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인과, 윤회를 알고는 인생의 단 한 순간도 허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인생을 바로 보고 잘 살게 하는 묘약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처럼 좋은 가르침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법회를 열 생각을 하게했다.

처음엔 1년에 한 번 집에서 도반들과 함께 법회를 가졌는데, 100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다. 3년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법회를 열자는 데 뜻을 세웠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라는 뜻의 '여여회(如如會)' 라는 모임을 만들고 30여 명이 모여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우리는 선우' 의 구룡사 사경법회가 있어 권선을 하다 보니 몇 사람이 집에 와서 공부하는 모임이 되었고, 차츰 인원이 많아진 것이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도 교육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끝내고 나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교육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불교를 만나고 법회를 만들고 경전을 공부하면서부터 알게 되었다. 끝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배우고 또 배우며 그 가운데서 깨우치고 또 깨우치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올 때 사람은 다시 한 번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교에 입문해서 보니 경전을 공부하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겠다는 생각에서 법회를 열고 경전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무릎포교, 무릎전법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이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포교를 의미한다.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무릎에 앉아 커가는 것처럼, 포교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정법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 달에 한 번씩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면서 20년 동안 '내가 부처님 법에 물들면 가족이 물들고, 가족이 물들면 이웃이 물들고 이웃이 물들면 사회가 물들면서 서로 서로 물들어가는 신앙의 띠잇기 운동을 펼쳐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가족이 응원해준 힘이 컸다.

우리 가족은 1996년 해인사에서 가족수계를 받은 이후 남편과 두 아들은 방이동에서 가정법회를 꾸리던 나를 "방이동 포교국장"이라고 부르며 응원해주었다. 해인사 수계식에서 남편은 우담(雨潭), 큰아들은 호경(湖庚), 작은 아들은 삼현(三泫)이라는 법명을 받고 온 가족이 진정한 불자가 되었다.

공부를 하려면 청정한 도량, 훌륭한 스승, 신심 깊은 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여회는 이 세 가지 여건을 잘 갖춘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우리 집이 비록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곳이지만 법회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안심과 행복을 주는 법당이 되기를 기원하며 살았고, 해인사 종진 스님은 지도법사로 오랜 동안 먼 걸음을 하시며〈승만경〉,〈옥야경〉,〈육방예경〉,〈삼귀오계〉,〈묘법연화경〉,〈무량의경〉,〈보현행법경〉등을 법문해 주셨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18년 동안 법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소임을 맡은 여여회 회원들의 성실한 신행이 큰 역할을 했다. 그 달 경전공부의 내용을 녹취, 이를 컴퓨터로 문서화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도반들이었다. 따로 회장이나 운영진을 선출하지 않고도 회원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은 경전 위주의 교리공부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찾아 다양한 보시행을 펼쳐왔다. 도반들이 살림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경전에서 '나눔(보시)' 을 가르쳤던 덕분이었지 싶다.

거조암, 운주사, 연흥사 불사를 비롯해, 경전이 필요한 사찰을 찾아 한글대장경, 티베트대장경 등을 봉인해서 1만여 권 이상을 법보시했다. 불사엔 남편도 동참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기울던 절이 불사 후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도반들은 나의 공덕을 얘기하지만 거꾸로 그 도반들이 없었다면 이렇듯 오랜 동안 가정법회를 지속해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은행통장은 숫자로 보이지만 '공덕통장' 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은행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것보다 공덕통장에 공덕이 쌓여야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법화경〉에 보면 '서원안락행(誓願安樂行)' 이라는 말이 있다. 서원이 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하게 된다는 뜻인데, 정말 20년 동안 나와 인연있는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했던 것 같다.

가르침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불자는 불자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를 자주 강조했다.

장자에 보면 한 푼의 추를 만드는 팔십 먹은 장인도 그 도에 이르기까지 저울추를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일만을 해왔다는 글이 있다.

여럿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여럿이
여여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여원 원장〉

동의보감 옻나무 손발이나 아랫배가 냉한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관절 결림에..
(장수버섯 옻 탕 처방하는 한의원 효능에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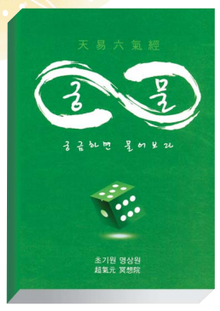


참옻나무티백 (국산) 자연야생 장수버섯 (국산)

- 독성제거허가 옻나무티백 1.8kg + 장수버섯 80g = 원료 (1개월분) 60팩 위탁가공비 배송비 포함 15만원
- 옻나무에 장수버섯을 첨가하면 독성이 좋은 물질로 증가됩니다.
- 전통 가열방법 옻나무 법제만 진한 황금색이며 약간의 단맛이 나며 복용하기 좋습니다.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음)
- 옻 독성제거 특허 10-0994377호 장수버섯 옻 탕의 옻나무는 과학적으로 수족냉증, 위장허약,관절염에 효능 ① 특허10-0807169 ② 특허10-0007471 장수버섯은 혈전용해 특허10-1011650 규명되어 있습니다.

1944년생 개발자 황보병호
010-5556-1526 홈페이지 amesil.kr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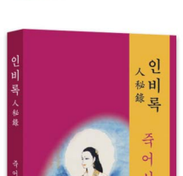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절찬리 판매중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